

謁聖試를 통해 본 朝鮮時代 科擧制度和 服飾의 比較 考察

徐 玉 卿

暎園專門大學 衣裳디자인科 副教授

A Comparative Study on the Dress and Its Ornaments an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in the Chosŏn Dynasty Focused to Alsŏngsi(謁聖試)

Ok-Kyung Suh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yungwon College

目 次

Abstract	2. 及第者服
I. 序 論	IV. 謁聖試의 施行節次와 圖繪에 나타난 服飾과의 比較 考察
II. 朝鮮時代의 科擧制度	V. 結 論
1. 朝鮮時代의 謁聖科擧制度	參考文獻
III. 朝鮮時代의 科擧服飾	
1. 儒生服	

Abstract

Confucianism, the dominating thought in the Chosŏn Dynasty, considered the congruence of scholar and bureaucrat as principle of royal politics, so it was the important affairs to educate and select scholars who excelled in Confucian science and its historical view.

The process to educate and select the scholars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Confucianism was call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dress and its ornaments of the Confucian students and that of the successful candidate related to the system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focused on the literatures and figures.

The Chosŏn Dynasty looked upon the education as important and Confucian scholars and the successful candidate had the superior position in that society.

There seems to have been the demarcation between the dress and its ornaments worn by the candidate and the successful candidate.

According to the inquiry of the literatures and figures, the candidate is thought to have worn *yuguhn*(儒巾) or *bokkuhn*(幅巾) with *chŏngsam*(青衫), *nansam*(襪衫), *jikryung*(直領) and the successful candidate is thought to have worn *bokduh*(幘頭) with *easahwa*(御賜花), *aengsam*(鶯衫) and *danryung*(團領) in the Chosŏn Dynasty.

I. 序 論

朝鮮王朝는 儒學을 國家의 통치이념으로 삼고, 그 사상적 바탕 하에 사회체제를 편성하였다. 조선시대의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은 대단히 까다로운 절차를 수반하였는데, 이 인재등용 절차를 科擧라고 칭한다. 즉 科擧制度는 儒敎를 國家의 지도이념 내지는 실천윤리로 삼았던 朝鮮時代에서 주로 儒敎經典의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科擧制度 중 國王이 친림하에 거행된 제도를 謁聖科擧制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알성과거제의 施行節次 상 나타나 있는 服飾에 한해 文獻과 圖繪를 中心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朝鮮時代와 같은 階級社會에서 服飾은 身分의 표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科擧服飾의 研究에 그 의의를 두려고 한다. 또한 朝鮮時代의 科擧制度和 응시자인 儒生들의 服飾과 及第 後의 服飾을 圖繪를 통해 比較·研究하고자 한다.

II. 朝鮮時代의 科擧制度

科擧制度는 中國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 관리선발의 거의 유일한 方法이 되었다.

中國에서는 魏 文帝의 인재등용법에서 출발하여 隋文帝 7년(587년)에 확립되었고, 우리나라에서의 科擧制度 실시는 新羅 元聖王 4년(788년)에 讀書三品科의 制度를 설치한 것을 시초로 본격적인 科擧制度는 高麗 光宗 9년(958년)에 後周의 귀화인이던 翰林學士이던 雙冀의 건의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이후 구한 말 甲午改革(1894년)시 폐지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관리선발제도도 정착하게 되었다.

이 科擧制度는 순전히 中國制度의 모방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科擧制度를 실시해야만 할 時代의인 요구와 歷史的인 필연성에서 수용하게 된 것이다.

즉 비대해진 貴族勢力의 抑壓과 中央集權體制

(王權強化)의 確立이 그 목적이었다¹⁾.

다시 말해서 科擧는 科目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관리등용시험으로 君主專制權을 확립하는 방편의 하나로 朝鮮 高宗 31년(1894년)까지 936년간 실시되었다²⁾.

특히 朝鮮時代의 科擧는 문민우위의 확고한 통치이념 속에서도 文科와 武科의 균형을 철저히 유지하였으며 科擧를 통해 등용한 人材를 中心으로 政治의 활력을 북돋고 당당한 시대마다 적절한 혁신의 토대가 되도록 하였다.

朝鮮時代의 科擧에는 司馬試(小科), 文科(大科), 武科, 雜科의 네 종류가 있으나, 실은 小科, 文科를 하나로 묶어서 크게 세 종류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상은 3년에 한번 定期的으로 열린 시험으로 이를 式年試라 했다. 그러나 이밖에 不定期로 열린 增廣試, 別試, 庭試, 謁聖試, 春塘臺試 등이 있었다.

1. 朝鮮時代의 謁聖科擧制度

謁聖試란 임금이 謁聖後 명륜당에서 儒生을 시험하여 儒生 중 성적우수자에게 及第를 준 것인데 文·武科 두 과만 있었다. 國王이 親臨下에 거행된 것이기 때문에 親臨科라고도 한다. 고시 시간이 짧은 燭刻試이며 당일에 합격자 발표를 하는 即日放榜 이었다.

朝鮮王朝에 처음으로 謁聖文科가 실시된 것은 太宗 14년 7월 17일 이었는데 河崙의 건의에 의해서이다. 국왕이 친히 성균관에 가서 식전 또는 식채, 작헌의 예를 선성선사에게 올리고 명륜당에 移御하여 성균관원과 유생의 국궁사배를 받고 출제하여 친림하에 즉일로 방방하였다.

조선왕조 역대 국왕의 幸學과 알성사에 대한 것은 <表 1>과 같다.

III. 朝鮮時代의 科擧服飾

科擧服飾은 及第 前의 儒生服과 及第服飾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服과 冠帽로 분리해서 考察하기로 한다.

1) 이성무, 「鮮初의 成均館 研究」, 역사학보, p. 252.

2) 이만규, 「조선교육사(상)」, 을유문화사, p. 281.

<表 1> 朝鮮時代 역대 국왕의 幸學과 알성사³⁾

국 왕	幸學한 회 수	알성시 회 수	알 성 사 합격자수
태 종	3	1	26
세 종	11	2	28
단 종	1		
세 조	1	3	31
성 종	12	2	24
연산군	1	1	14
중 종	17	6	35
명 종	11	5	25
선 조	11	9	86
광해군	7	7	48
인 조	7	6	39
효 종	3	3	19
숙 종	12	13	83
경 종	1	1	7
영 조	19	14	83
정 조	5	9	41
순 조	2		
현 종	1	1	3
철 종	1	1	3
고 종	10	4	23

1. 儒生服

1) 儒 巾

儒生인 生員, 學生, 士人들은 儒巾을 착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儒巾에는 글자 그대로의 儒巾과 幅巾이 있었다. 그리고 幅巾에 대하여서는 世宗

實錄에 보이는 바, 進士 放榜에 進士들이 黑領을 입고 儒巾을 썼다는 것이다.

幅巾은 대개 黑色의 緇 6尺을 가지고 귀 모양으로 만들어서 드림을 뒤로 보내어 머리에 쓰고, 그 뒤쪽에 끈을 하여 귀를 걸쳐 뒤통수에 매개 한 것이다. 이것은 본래 中國 古代로부터 있어서 冠을 대신하는 간편한 스개였는데, 後漢代로부터 流行이 되고, 隋·唐間에 걸쳐 차차 隱士·道人の 雅服을 이루었으며, 宋에 이르러 司馬 光이 幅巾과 深衣를 燕居의 冠服으로 착용하고 朱熹가 이것을 그 家禮(文公家禮) 가운데 推擧한 다음부터 儒者들 사이에 유행을 보았던 것이다.

儒巾은 黑巾 혹은 黑紵로 검은 巾인데 民子巾이라 고도 하였으며, 儒生 通常禮服으로 道袍나 두루마기에 併用하였다. 이것은 [經國大典]에 諸學生徒 冠으로 緇布巾에 단령을 입고 儒學은 靑衿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다.

[三才圖會]에 의하면 옛날의 선비들은 遠掖이란 옷과 章甫라는 冠을 썼으니 이것은 現在 선비의 冠인데 대체로 科擧에 응시하여 及第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 다 썼다고 한다⁴⁾.

高麗 辛禱 13年 6월에 官服을 制定함에 있어서 成均生員 및 京外學生 權務及 無職士人은 平頂頭巾을 着用하였는데 明나라에서는 靑衿에 幅巾을 着用하고 있으니, 幅巾을 着用하였는지, 儒巾을 着用하였는지 알 수 없다⁵⁾라고 기록되어 있다.

世宗 20年 3月 乙丑 「進士放榜儀에 進士는 黑圍領에 儒巾을 쓰고 三日游街하였다고 하였다⁶⁾」의 儒巾은 明制의 儒生服에 있어서의 幅巾인 條軟巾垂帶를 말한다.

[經國大典]에 나타나 있는 諸學生徒의 緇布巾은 幅巾인지 儒巾인지 확연히 단정지을 수 없으나 전기 條軟巾垂帶와 같은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⁷⁾.

[然藜室記述] 別集 政教典故에서는, 民字巾 혹은 竹으로 엮어 검은 베로 짜거나 종이를 바르고 옷칠을 하였는데 그 모양이 端正하여 그다지 뵈

3) 피정만, 조선시대 성균관의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성대박사 1990, p. 83.

4) 三才圖會 儒巾.

5) 太宗實錄(1) 太宗 11年 6月.

6) 世宗實錄(3).

7) 金 東旭, 韓國服飾史 研究, 亞細亞文化社, 1973, p. 384.

죽하거나 비스듬하지 않으며, 科擧를 보는 자제와 무인학생이 모두 儒巾에 黑圓領을 입는다고 하였다. 이 儒巾을 儒生들은 館中에서 썼고 街頭에서는 着笠하였으니 「成하여 前부터 館에서는 儒巾을 쓰고, 路上에서는 着笠하였다」⁸⁾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風俗은 後代에도 여전하였다고 할 것이다.

中宗 11年 5月 戊子에 中宗이 朝講에서 '近來 儒生의 風俗이 경박하여 儒生이 靑衿服을 着用하지 않아 常人과 混同되니 憲府에서 糾察하라'고 하였다. 이에 領事申用漚는 '閩港間에 儒生으로 假稱하여 橫行者가 많으니 단속하여야 하고, 中國의 儒生은 行路에서 頭巾을 着用하니 우리나라 儒生도 頭巾을 着用하게 하고 違反者는 不齒함이 가하고 儒生이 모두 圓領을 不着하니 이것 역시 不可하다'고 하고 있다⁹⁾.

또한 英祖 22年 9月 乙酉에 右參贊 元景夏가 奏하기를 故 參判 金功이 宣祖朝에 明나라 神宗 皇帝로부터 幅巾, 衫 二襲을 領賜받았는데 一襲은 太學에, 一襲은 安東鄉校에 각각 수장하였는데, 太學의 것은 壬辰亂에 소실되고, 安東鄉校의 것은 保存되어 있다고 하여 가져오게 하였고, 10月 王子에 生進唱榜時에도 처음으로 幅巾, 衫을 制定하였다¹⁰⁾. 고로, 이제까지 冠巾으로 [經國大典]에서는 緇布巾, 成宗·中宗朝에서는 頭巾, 顯宗朝에서는 다시 儒巾을 着用하다가 英祖朝에서 幅巾으로 되었고, 生員·進士도 儒巾을 着用하다가 幅巾을 着用하게 된 것이다.

2) 服

儒生은 일반적으로 儒道를 닦는 선비를 말한다. 또한 學問의 깊이에 따라 上位 概念으로 儒士가 있지만 이는 廣의의 儒生이 될 수 있으므로 여

기서는 협의의 儒生으로서 儒學生과 儒學者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靑衿¹¹⁾ 이라고도 하였다. 儒學生에게는 成均館生을 비롯 사학·향교·서원·서당생 등이 있었다. 太宗實錄에 儒生服은 「成均館 및 五部儒生은 朝廷의 制度에 의하여 비로서 靑衿을 착용하도록 하였다」¹²⁾ 이 것은 明制를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洪武 24년에는 生員은 衫을 착용하되 玉色의 布絹으로 만들고 寬袖이며 緣을 두르고 幅巾을 쓰게 하다가 洪武末 遮陽을 쓰는 것을 許容하였는데,¹³⁾ 우리나라 太宗朝 靑衿은 여기의 衫을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¹⁴⁾. 世宗實錄에 同王 20年 2월에 進士放榜에 進士들이 모두 服은 黑領을 입고 冠은 儒巾을 썼다고 하였으니,¹⁵⁾ 黑領은 衫에 緣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經國大典 禮典 儀章條에 諸學生徒의 冠服으로 緇布巾(在學), 圓領(儒學用 靑衫), 條兒를 띠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李德懋의 [靑莊館全書]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太宗朝에 이르러 儒生의 冠服이 明의 國子監生의 例를 본따다」¹⁶⁾ 하였고 그 註에 「中間 太宗의 時令이 行하여지지 않았다」¹⁶⁾ 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經國大典]에서의 制度는 제대로 行하여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기도 하다. 儒生은 中期에 道袍와 裳의를 주로 착용하였는데, 中國 袍類의 廣袖를 모방하였음인지 寬袖大袍가 유행하기도 하였으나, 燕山君 11年 8월에 長袖가 너무 넓다 하여 고치도록 하였다.

[芝峯類說]에 보면 「지금은 儒生이 朝官의 모양과 같이 靴을 신고 말을 타고 走步하는 者가 없고 平素에 어른이라 할지라도 行纏을 치고 直領衣를 입었는데 지금은 젊은 者라도 道袍를 입고 行纏과 分套를 하지 않는다」¹⁷⁾ 라고 하니 過去에

8) 成宗實錄, 卷86, 8年 11月.

9) 고광림, 圓領에 관한 研究, p. 335.

10) 고광림, 幘頭·公服에 관한 研究, p. 419.

11) 靑衿: 「詩經」의 靑衿子衿에서 온 말. 유생을 달리 이르는 말로서 靑衿이라 하였고 학적부들 靑衿錄이라 하였다.

12) 太宗實錄 卷二十一, 十一年六月條 參照.

13) 明史 卷第六十七 志第四十三 服三 參照.

14)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p. 375.

15) 世宗實錄 卷八十, 二十二月條 參照.

16) 李德懋著, 「靑莊館全書」, 卷五十七 안엽기 參照.

17) 이수광 「芝峯類說」 卷3. 君道部.

儒生이 直領衣를 着用했으나 지금은 道袍를 입는다는 것이다. 즉, 道袍는 朝士의 常服도 되고 儒生の 常服도 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常服으로 삼았던 것이다.

〔燃藜室記述別集〕에도 「선비의 出入時 紅衣直領을 입었지만 明宗乙丑(1565년) 이후 연달은 國喪으로 素服을 입었다」고 하고 있다. 이로서 明宗末과 前에도 紅直領을 着用한 것을 알 수 있다.

韓元震의 [南塘草稿]에서의 道袍에 관한 설명을 보면 「士子의 出入常服은 爲官者가 입은 直領公服으로 할 수 없으므로 直領에 따라 그 制度를 變更하여 道袍를 만들었다. 道袍의 前面은 直領과 같고, 後面은 直領의 二葉衫을, 道袍에는 衣裏汗版左右에 展附한 것이 다르다」 하였는데 이에서 볼 때 道袍는 直領과 前面은 같으나 뒤 汗版이 다르고 展衫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英祖代에 金在魯가 [經國大典]에 註한 것을 英祖實錄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儒學靑衿에 있어 儒學은 儒生이며 衿衫은 그것이 靑衣인지 혹은 衣는 紅이고 領은 靑인지 의심이 간다. 詩經의 注와 字書에는 衿은 領이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볼 때 紅衣靑領을 말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芝峰類說에서는 우리나라 儒士는 사사로운 出入에 紅直領을 입었는데 明宗 末年에 國恤이 잇달아 白衣를 躋着하게 되고 마침내 成俗이 되었다고 하고 있으니, 이에서 보면 필시 紅衣가 祖宗朝의 舊制일 것이다¹⁸⁾.

2. 及第者服

1) 幘頭

頭는 冠巾의 一種으로 上市 또는 折上市이고, 幅巾으로 머리를 髮하기 때문에 幘頭라고 한다는 것이다. 幘頭의 기원에 대하여서는 宋史에 다음과 같이 있다. 「幘頭는 一名 折上이니 後周에서 부터 일어났는데, 그때는 軟帛으로 脚을 드리우는데 그쳤으며, 隋에서는 桐木으로 하였다. 唐에 와서 緇 대신 羅로 하였으며, 帝臣은 脚이 위로

굽고 人臣은 아래로 드리웠다. 그것이 五代에 이르러 점차 平直으로 변하고 宋의 制度는 君臣이 모두 平脚으로 하였다」 또 幘頭巾子 自今高不過二寸五分이라 하였으며, 士大夫家의 祭禮나 婚禮時에 具成服일 경우는 有官者나 進士·處士는 幘頭를 着用한다고 하였다¹⁹⁾. 이것은 明의 制度가 前朝의 舊制를 參照하여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그 대로 沿用되었으며 朝鮮王朝時代 世子나 百官의 公服에 착용하는 冠帽가 된 것이다²⁰⁾.

이 幘頭에 대한 說明을 崔南善은 [朝鮮常識] 風俗篇에서 「支那에서는 본래 幅巾과 幘頭가 一物二名이요 구별이 없더니 五代末의 周武帝가 幅巾의 帛를 네가닥에 折어서 위로 치켜다가 잡아메어 鬚을 만드니 이것이 幘頭가 따로난 시초요, 뒤에 鬚이 鬚으로서 둘이 되고 부드럽던 것을 鬚鬚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변천이 있으면서 唐代에는 貴人常服의 쓰개로 특히 성행하니, 심상우리가 中國風의 畫圖 중에서 보는 바 鬚鬚은 이의 쓰개가 곧 그것이다²¹⁾.

朝鮮王朝 後期の [國婚定例]나 [上方定例]에서도 幘頭의 制式은 나타나 있는 것이며, 또한 幘頭·襪衫으로 儒生冠服 내지 及第冠服이 되어 國末까지 유지되어 왔다. 幘頭는 科擧에 급제한 이가 紅牌을 타러 들어갈 때 쓰게 되었고 及第冠服에 있어 科擧에 壯元及第하면 幘頭에 御賜花를 꽃고 三日遊街한 풍습이 있었다.

唐代的 幘頭가 新羅 眞德女王 3年 唐制服飾을 襲用하게 되면서부터 朝鮮朝에 와서도 [經國大典] 例典 儀章條에 보이듯이 모든 百官公服에 이를 착용하도록 하였고 또한 이 幘頭는 襪衫, 圓領과 함께 儒生冠服 내지 及第者冠服으로서 國末까지 착용되었다.

14代 宣祖朝에 朝臣에게 舊制度를 금하고 朝參·常參은 黑盤領, 혹은 窄袖衣를 着用하게 하고, 公服에는 幘頭를 착용하게 하였다²²⁾라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뒤에 어느 때부터인가 幘頭는 科擧에 급제한 이가 紅牌을 타러 들어갈 때에나 쓰게 되고, 公服에서 그 자취를 감추고 紗帽 하나로써

18) 英祖實錄 卷五十三, 十七年四月條 參照.

19) 宋史卷一百五十三志一百六 輿服 士庶人服.

20) 柳喜卿, 朝鮮의 百官服, 誠信女大 論文集, 1968, p. 92.

21) 崔南善, 「朝鮮常識」.

22) 石宙善, 「韓國服飾史」, 寶善齋, 1978, p. 100.

公·常服에 通用하게 되었다.

2) 服

國初의 襪衫은 明太祖때 전해내려온 襪衫임을 알 수 있고, 또한 靑色 絹衣에 緣을 하였으니²³⁾ 洪武 24년에 着用하던 玉色 絹衣에 緣을 한 襪衫과는 色에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太宗實錄에 보이는 바, 成均館 및 五部儒生の 靑衿과 世宗實錄에 나타나 있는 放榜에 있어 進士들의 黑領 및 [經國大典]의 諸學生徒의 團領服은 明制를 따른 것이며 그것은 곧 襪衫이라 하였거나와, 이 襪衫은 [三才圖會]의 圖說에서 보면 深衣의 制度에서 나왔다고 하고 있다.

世宗朝에는 進士가 襪衫을 着用했음을 알 수 있고²⁴⁾ 世宗 7年은 明의 洪熙 年間이므로 世宗 10년에 있었던 襪衫은 玉色 衣에 靑緣을 한 것으로 幘頭 外에 帶를 着用하였다.

[林下筆記]에 의하면 太學生服으로서 襪衫이 制定된 것은 宣祖 22年 8月이었다²⁵⁾.

이때의 襪衫은 王이 進士科에 급제한 사람은 襪衫, 幘頭에 연꽃을 꽃고자 하였으나, 襪衫의 法式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때 着用한 襪衫은 明神宗皇帝때에 입던 襪衫을 우리나라 太學生服으로 制定한 것으로 보아 監色衣에 靑·黑緣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李裕元의 [林下筆記] 文獻指掌編에서 보면 成宗 8年 輪對官 白勛이 館學 儒生으로 하여금 靑衿團領을 착용하도록 청하자, 領經筵事 金國光이 이를 行하려고 하다가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 이때에 와서 이미 [經國大典]에서의 制度는 解弛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또한 이에는 宣祖때 趙憲이 質正官으로서 燕京을 다녀오면서 襪衫의 制가 中間에 와서 착용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²⁶⁾.

그런데 顯宗 末年에 權尙夏가 太學에 재입되던

서, 中國 制度에 따라 靑衿 및 幘頭로서 儒生들의 服色으로 하고, 처음 급제를 한 사람에게는 한송이 연꽃을 꽃도록 하고, 壯元及第를 한 사람은 두송이를 꽃도록 하였으나 中國 天子의 서거로 중지되었다고 한다²⁷⁾.

英祖 10年 4月 乙丑에 生員, 進士, 儒生의 冠服으로 襪衫, 幘頭를 制定하지는 거론이 있어 英祖는 儒臣으로 하여금 詳考하여 收議하자는 下命이 있었고,²⁸⁾ 英祖 18年 4月 壬寅에 또 儒生服에 對한 論議가 있었다. 卽 英祖는 儒生의 服色을 舊制대로 紅團領이 좋다고 하였고, 議政 金在魯도 紅團領이 적당하다고 하였으며, 副護軍 尹鳳九와 權尙夏가 明나라에 學生服으로 幘衫, 幅巾을 着用하니, 幘衫, 幘頭를 着用할 것을 啓請하였으나, 金在魯의 뜻에 따라 儒生服으로 紅團領을 하였다²⁹⁾.

[大東紀年]에서 보면, 英祖 22年 儒生이 科擧를 볼 때에는 襪衫에 幘頭를 쓰게 하였고, 또한 生員·進士에 대하여서도 幘頭·襪衫을 착용하도록 榜을 부치게 하였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襪衫의 制를 알지 못하였는데, 筵臣이 말하기를 參判金功이 燕京에 使臣으로 갔을 때 皇帝로부터 幘頭·襪衫과 大學衍義 일부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 安東學舍에 所藏시켰다 하여 王이 사직에 분부하여 이 幘頭와 襪衫을 가져오게 한 후, 生員·進士의 衣冠을 이에(明制)에 따르도록 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³⁰⁾.

李青翊의 [燃藜室記述別集]에서 보면 英祖 22年 8월에 上이 安東鄉校가 舊藏하고 있는 襪衫, 軟巾, 條帶가 있다고 듣고 命하여 取來케 하고 그 制를 그대로 모방하여 裁成하였으며, 一件을 成均館에 下賜하여 六一閣에 所藏토록 하였고, 同王 23年 3月에는 여러 進士가 이를 始服하여 영구히 定式이 되었다고 하였다³¹⁾. 英祖 29년에는 科擧를 보는 生員·進士들이 襪衫을 着用하고 있

23) 李漢, 「星湖僊說」, 三冊, 卷十五.

24) 世宗實錄, 卷四二.

25) 李裕元, 「林下筆記」卷二十二, 文獻指掌編一, p. 563-564.

26) 李裕元, 「林下筆記」卷十七, 文獻指掌編 參照.

27) 增補文獻備考, 下卷 二〇八, p. 421.

28) 高 광림, 幘頭·公服에 관한 研究, p. 417.

29) 高 광림, 전계서, p. 337.

30) 張志淵, 「大東紀年」參照.

31) 李青翊, 「燃藜室記述別集」卷十三冠服 參照.

있음을 알 수 있다³²⁾.

英祖 22년에 입었던 玉色 衣에 緣을 한 襪衫은 鶯衫으로 變할 때까지 계속해서 着用되었던 것 같다³³⁾.

IV. 謁聖試의 施行節次와 圖繪에 나타난 服飾과의 比較 考察

謁聖試는 國王의 親臨下에 거행되므로 「親臨科」라고도 별칭되며 卽日로 放榜하였는데, 謁聖試와 관련이 있는 圖繪에 나타난 儒生服에 대하여 考察하려 한다.

科擧施行의 節次로는 응시자의 4대조까지의 가계를 기록하고 그 신분보증서를 제출한 다음 未明에 열리는 科場에 입장할 수 있다. 입장시 당일 새벽 세관원들이 응시자를 일일이 호명하여 응시자의 衣襟箱을 뒤져 서책의 소지여부를 조사하고 날이 밝을 무렵에 詩題를 내걸고 해가 기울면 북을 울려 글을 재촉하고 완성하여 收券官에 게 시권을 바쳤다³⁴⁾. 科場에 입장할 때 소용되는 제구는 靑袍에 儒巾을 着用하고 호패와 조흔집을 소지하며 지필묵, 습분판, 운서만을 준비할 수 있었다.

圖繪에 나타난 儒生服은 科場에서 시험을 치를 때의 服飾과 放榜 後의 服飾으로 구분되어진다.

謁聖試는 아래와 같은 節次에 의하여 施行되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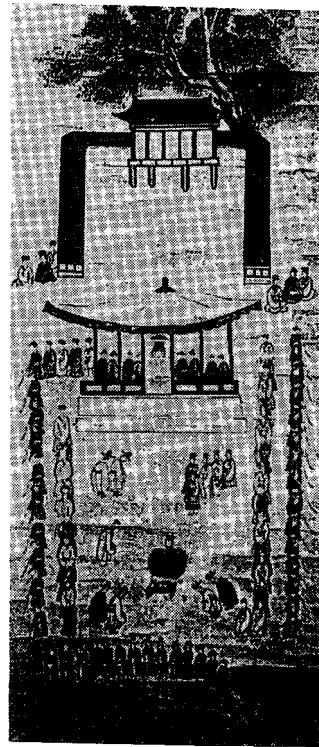
· 照訖講

小科는 <小學>과 <家禮>, 大科는 <經國大典>과 <家禮>를 臨文考講하여 합격자에게 帖文을 주었고 帖文이 없으면 錄名할 수 없다.

· 錄名

儒生들은 錄名所에 나아가 四祖單子와 保單子를 낸다. 녹명관은 이상 유무를 조사해서 녹명책에 기입한다.

<그림 1>은 謁聖科擧圖로 英祖때의 그림으로



<그림 1> 謁聖科擧圖(고려대 박물관 소장)

추측되며 儒生들이 과거장에 들어가기 전, 官員들이 호명하여 조사하는 장면이다. 고려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 2>는 謁聖科擧圖의 일부분으로 錄名의 圖이다. 儒生들이 科場에 들어가기 전 官員에게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장면으로, 謁聖試의 錄名은 四館의 七品以下가 담당하였다³⁵⁾. <그림 2>의 科擧場의 儒生服을 보면 儒巾을 쓰고 있고, 服은 廣袖의 소매에 直領의 깃형태이고, 색은 靑色과 白色이 섞여 있다.

· 試紙제출

儒生들은 錄名후 각자 지전에서 시험지를 구입

32) 英祖實錄, 卷八十, 二十九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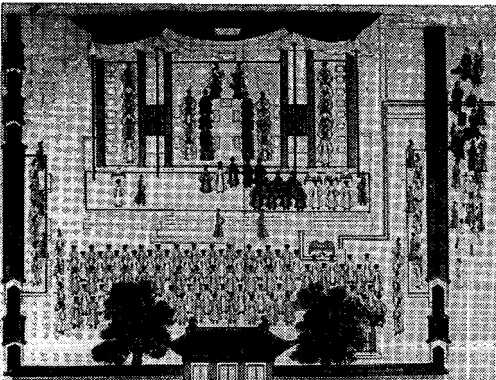
33) 喪仁淑, 謁聖圖와 放榜圖에 나타난 儒生服飾, 梨大碩士論文, 1988, p. 64.

34) 「한국민속대관」p. 164.

35) 유석영, 고려·조선왕조의 과거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p.117.



<그림 2> 謁聖科擧圖의 部分圖 (錄名)



<그림 3> 王世子入學圖

한다. 서울은 四館員이 지방은 入門官이 조사후 印給한다.

· 謹封

儒生이 試紙 끝에 本人의 官職·姓名·本官·居住와 父, 祖, 曾祖의 官職 및 姓名, 外祖의 官職

· 姓名·本官을 5行으로 쓴 뒤 그 위에 종이를 붙여 封하고 上中下 세곳에 근봉이라고 쓴 다음 錄名官에게 도장을 받았다. 이것을 '外托印'이라고 하여 이처럼 누구의 시험자인지 알 수 없게 이름을 가리는 것을 封彌法이라 하였다.

<그림 3>은 王世子入學圖의 한 부분으로 대성전에서 酌獻을 하는 모습이다. 내부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있다. 王世子入學圖는 장서각 소장 회화자료(1993년)로 酌獻儀이다. <그림 3>에 일렬로 늘어서있는 儒生들의 服은 靑色과 白色의 直領袍에 黑色의 儒巾을 쓰고 있다.

<그림 4>는 王世子出宮圖의 한 장면으로 下贊廳 주변에 둘러서 호위하는 모습이 보인다. 國王이 下贊廳에 도착하면 大次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거나 의복을 갈아 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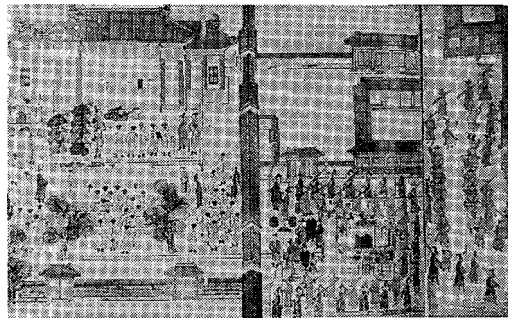
王世子出宮圖에 나타나있는 儒生의 服은 直領袍이며 儒巾을 쓰고 있다.

· 入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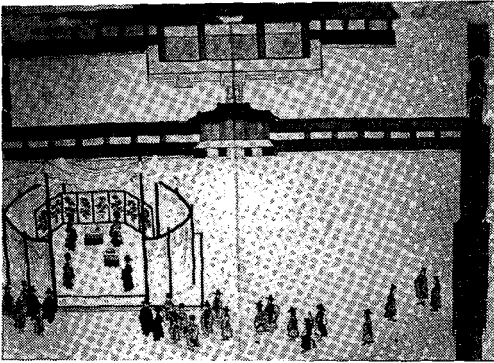
試日의 이른 새벽에 入門官은 儒生들이 오기 전에 모여있다가 開門하고 錄名冊을 보면서 呼名點入시키며 搜挾官은 문밖에 左右로 갈라서서 儒生의 옷과 상자를 뒤져서 冊冊 지참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림 5>에는 大次의 형태가 나타나 있다. 이 그림은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왕세자 수교도의 한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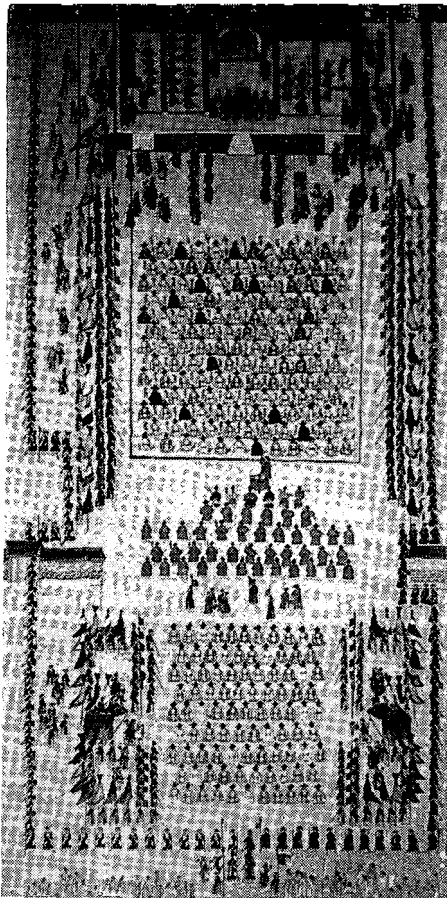
<그림 6>은 水原陵幸圖의 한부분으로 인정전 진찬도이다. 正座 배치를 보이고 있는데, 儒生들의 服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 王世子出宮圖(김홍도의 작품)



<그림 5> 王世子出宮圖의 部分圖(大次)



<그림 6> 水原陵幸圖(인경전 진찬도)

· 試題板示

國王 親臨이 없을 때는 보통 문묘에 참배하고 명륜당에 나아가 儒生과 음례를 거행하고 출제·개시하였다.

<그림 7>은 詩題板示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현재 明倫堂에 걸려있으며, 儒生들이 시험문제를 적어가는 場面이 인상적이다.

이 그림에는 儒巾을 쓰고 白色 直領袍를 입은 儒生들의 모습이 보인다.

· 試券作成

게시가 끝나면 곧 답안작성이 시작된다.

<그림 8>은 김응환의 그림 중 한 부분인데, 다소 개방적인 분위기가 엿보이지만 당시의 시험



<그림 7> 詩題板示(명륜당)



<그림 8> 試券作成(한국의 풍속화)

분위기는 대단히 엄격하였으리라고 추측된다.

試券作成을 하고 있는 儒生들의 服은 白色과 靑色の 直領袍에 黑色 儒巾을 쓰고 있다.

· 禮曹印

예조화랑이 打印官이 되어 오후에 試券을 거두고 印을 打印한 뒤 환급하였다. 후에는 四館員이 打印하였다.

· 收券作軸

답안의 작성이 끝나면 收券所에 제출하는데 거두어 놓은 試券을 순서대로 100장씩 책으로 묶은 것을 作軸이라 한다.

· 封彌易書

作軸한 試券이 봉미관에게 넘겨지면 봉미관은 試券의 양편(皮封과 製文)에 번호를 적고 勘合을 그린다. 등록관은 서리를 지휘하여 朱筆로 試券을 베긴다.

이것을 易書라고 한다. 謁聖試와 소과, 정시, 춘당대시 등은 제외한다.

· 科次

參試官들이 分考하고 좋은 답안을 上試官에게 보인다. 分考가 끝나면 상시관이 모든 시관을 모아놓고 初考入格試券을 살피는데 이것을 승考拉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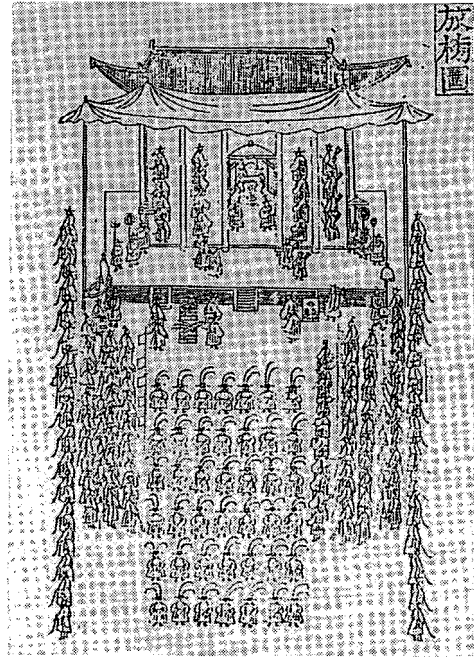
· 出榜

과차가 끝나면 본초를 가려내어 시관과 감시관들이 본초와 주초를 일일이 대조·勘合하고 國王에 보고한 후 봉미관이 방을 써서 발표한다.

· 放榜儀

唱榜과 함께 放榜儀가 열린다. 호명에 따라 정열하여 國王에게 사배례를 행하고 합격증서인 紅牌, 御賜花, 蓋(일산) 및 주과를 하사받았다. 과거 급제자에 한하여 蓋가 別賜되었으니, 어사화는 길이 약 20cm의 댓가지에 靑·紅·黃의 三色의 假花를 단 것이다.

〈그림 9〉는 正祖大王陵幸圖의 한 부분으로, 경조대왕이 水原陵 행차 후 치른 科擧에서 及第者



〈그림 9〉 正祖大王陵行圖의 부분도(放榜儀)

에게 放榜을 하는 모습이다.(放榜禮)

御賜花를 꽃고 서있는 及第者 앞에 상이 놓여 있고, 당안에 御座가 보인다.

正祖大王陵幸圖의 放榜儀에서는 幞頭に 團領을 입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恩榮宴

조정에서는 영의정을 宴官, 戶曹, 禮曹, 兵曹의 관서 등을 赴宴官으로 하여 殿庭에서 급제장이 축하연을 베풀어 준다.

· 謝恩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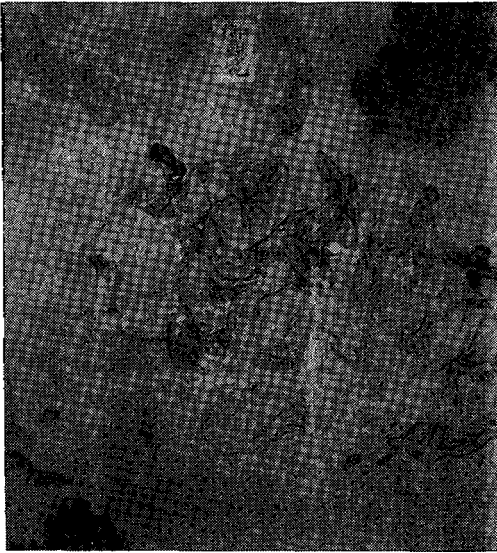
放榜 다음날 문과장원의 집에 모여 詣闕하여 國王께 사은례를 올렸다.

· 謁聖禮

謝恩禮 다음날 무과장원의 집에 모여 문묘에 가서 봉심하였다.

· 三日遊街

及第者에게는 小大科를 막론하고 시가 행진이



<그림 10> 三日遊街(김홍도의 오당평생도)

려락되었다.

<그림 10>은 단원 김홍도의 오당평생도의 한 부분으로 科擧에 及第한 者가 三日遊街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及第者의 服으로는 襴衫을 입고 幞頭에 御賜花를 꽃고 있는 것이 보이며, 御賜花를 한 及第者 앞에 樂工과 배우들이 있으며, 뒤에는 友人들이 따른다.

· 科擧歷錄

예문관에서는 급제자 명부인 榜日을 작성하고 이를 장부에 등록한다. 禮曹에서 검토·수정하여 각 관청 관계자 및 급제자에게 배포하였다.

V. 結 論

이상에서 朝鮮時代 科擧制度和 관련된 服飾에 관하여 考察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朝鮮時代 儒生들은 及第者나 특수양반 계급의 자제들로서 社會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階層이고, 특히 及第 후의 계급 상승은 제일 먼저 服飾으로 表現되었다.

朝鮮社會는 教育을 중요시 여겼고, 이와 관련된 科擧行사는 圖繪를 남기어 儒生들의 服飾과 及第者들의 服飾을 확인할 수 있었다.

謁聖試는 國王이 문조에 알성하는 날에 시행하는 것으로 大科殿試에 해당하는 단일단계로서 科試하였는데 즉일로 放榜하였다.

及第前의 儒生服飾은 儒巾이나 幅巾에 道袍나 直領袍, 髦衣를 着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及第者의 服飾으로는 襴衫着用的 기록이 있고, 幞頭에 團領을 着用하였다.

즉, 응시자인 儒生들의 服으로는 儒巾에 直領을 착용하다가 후대로 올수록 道袍와 髦衣를 착용하였다. 及第者의 服飾은 幞頭에 御賜花를 꽃고 團領을 着用하였으며, 國末 高宗 31년(甲午) 鶯衫으로 바뀌어서 着用되었다.

參考文獻

1. 經國大典, 법제처, 법제자료 4집, 1962.
2. 高光林, 團領에 관한 研究, 화성사, 1990.
3. 高光林, 幞頭·公服에 관한 研究, 화성사, 1990.
4.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76.
5. 大學志.
6. 明史 卷第六十七 志第四十三 輿服三.
7. 裴仁淑, 謁聖試와 放榜圖에 나타난 儒生服飾, 梨花女子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8.
8. 成宗實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0.
9. 世宗實錄, 卷四二.
10. 英祖實錄, 卷五十三, 十七年四月條.
11. 英祖實錄, 卷六十三, 二十二年九月條.
12. 柳錫永, 高麗·朝鮮王朝의 科擧制度에 관한 比較研究, 建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3.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2.
14. 李肯翊, 「燃藜室記述別集」卷十三 冠服.
15. 李德懋, 「靑莊館全書」卷五十七, 안연기.
16. 李萬珪, 「朝鮮教育史」上, 을유문화사, 1947.
17. 李成茂, 「朝鮮의 成均館 研究」, 1976.
18. 이순자, 襴衫의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78.
19. 李裕元, 「林下筆記」卷十七, 文獻指掌編.
20. 張志淵, 「大東紀年」.
21. 增補文獻備考, 下卷 二〇八.
22. 太宗實錄, 卷二十一.
23. 韓國史, 國史編纂委員會, 1976.
24. 韓元震, 南塘草稿, 雅盛文化社, 1976.